가천대 약술형 논술고사 국어(2025)

[2024년 8월 15일 발행]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본문 155	12번 문제 보기 3문단 특히, <제2수>와 <제3수>는 (②)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제3수>와 <제4수>는 (③)에 감정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2번 문제 보기 3문단 특히, <제2수>와 <제3수>는 (②)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나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제3수>와 <제4수>는 (③)에 감정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해설 8	5번 문제 해설 읽(동사 어간, 자립 형태소, 실질 형태소)	5번 문제 해설 읽(동사 어간,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정답·해설 8	2번 문제 해설 정답 ㉢ 명사절 해설 ㉠ 상주가 이 드라마에서 회장의 아들임이 밝혀졌다. (명사절) ㉡ 여주가 남주를 좋아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형절) ㉢ 나는 제대할 날만을 기다렸다. (명사절)	2번 문제 해설 정답 ㉢ 관형절 해설 ㉠ '상주가 이 드라마에서 회장의 아들임이 밝혀졌다.'는 명사절로 안긴문장이다. 명사절은 명사처럼 쓰이는 절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 명사의 역할을 한다. 명사형 어미 "-음", "-기", "-임" 등을 사용하여 절이 명사처럼 변형된 것이다. 이 문장에서 "상주가 이 드라마에서 회장의 아들임"은 명사절로, "밝혀졌다"라는 서술어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명사절은 상주가 이 드라마에서 회장의 아들이다라는 완전한 문장에서 서술어 "아들이다"가 명사형 전성 어미 "-임"으로 변형되어 명사구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 명사절로 안긴문장이다. ㉡ '여주가 남주를 좋아하는 사실이 드러났다'에서 '여주가 남주를 좋아하는'은 '사실'이라는 체언(명사)를 수식함으로써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다. 따라서 '여주가 남주를 좋아하는'이 안은 문장에서 관형어로의 기능을 하며, 동격 관형절이다. ㉢ '나는 제대할 날만을 기다렸다'에서 '제대할'

		이 '날'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제대할'은 동사 '제대하다'에 -ㄹ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앞의 명사 '날'을 꾸며주는 관형절을 형성한다.
정답·해설 10	7번 문제 해설 (가)와 (나)의 공통점은 젊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것이다.	7번 문제 해설 제시문에 실린 두 시는 모두 설화를 모티브로 차용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한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라 할 수 있겠다.
정답·해설 10	09 정답 – 자아 성찰과 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설 – (가)의 화자는 마음에 많은 공장을 세우고 너무 많은 기록을 남기면서도 쏘다니는 개처럼 머물지 못하는 청춘을 탄식하다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자신을 성찰하며 맺는다. 반면 (나)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도 학비를 받으며 유학 생활을 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작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함으로써 무기력한 자신과 화해하고 변화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09 정답 – (가)와 (나)의 공통점은 젊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것이다. 해설 – 기형도의 「질투는 나의 힘」과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는 각각 내적 요인과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성찰의 차이가 있지만, 두 작품은 화자가 자신의 한계와 삶의 고통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먼저, 기형도의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느끼는 질투와 같은 감정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삶의 부조리함과 불완전함에 대한 자각을 드러낸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관점을 담고 있다. 반면, 윤동주의 시에서는 일제 치하의 억압적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글을 쉽게 쓰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성찰하며,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두 시 모두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고통을 직시하고, 이를 시로 표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정답·해설 18	10번 문제 해설 ㉠은 '독한 마음'으로 ~ 화자의 저항의지를 보여 주며 지조와 절개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제시문에서 강직한 삶의 자세와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신하로서 나라와 임금에 대한 충의라 할 수 있다(우국지정).	10번 문제 해설 ㉠의 독은 '독한 마음'으로 ~ 화자의 저항의지를 보여 주며 신념과 소신을 나타낸다. 따라서 ㉠의 '독'과 제시문 '해올 일'은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는 자세로 유사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정답·	11번 문제 정답	11번 문제 정답

해설 18	정답 ·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해설 중간 교체 <제3수>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는 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 쏜가 · 주야에 흐르는다 해설 중간 교체 <제2수>에서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 쏜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모를 쏜가'라는 설의적 표현은 화자가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반문하는 형태로 제시하여 자신의 결단과 확신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즉, 화자는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 행동을 정당화 하거나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제3수>에서 '주야에 흐르는다'는 '밤낮으로 흐르는가'로 해석되며, 설의법으로 나타내어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시냇물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해설 18	12번 문제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말하는 / 말을 거는 해설 중간 교체 ② '무엇을 하려고 주야로 흐르냐'라며 시냇물에 말을 거는 듯한 표현을 드러내며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12번 문제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설의적 표현 / 의문형 해설 중간 교체 ② <제2수>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 쏜가'는 설의법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제3수의 '주야에 흐르는다'는 '밤낮으로 흐르는가?'라는 의미로 설의법을 화용,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시냇물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책 출간 후의 오류, 오타 발견으로 정오표를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인쇄 시 반영하여 출간하겠습니다.